

한국 반도체산업이 나아갈 길

정 소 영

Merit Communication社

최근 개최된 SEK(Software Exhibition Korea) '95 전시회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서는 우리 귀에 익히 알려져 있는 대기업군들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걸고 있는 수많은 젊은 중소기업체들도 대거 참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의 미래가 밝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결 흐뭇하게 만들었다.

SEK에서 우리가 느낄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컴퓨터가 단순히 사무인력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텔레비전, CD의

음질과 LD의 화질을 동시에 즐길수 있는 기기들, 그리고 팩스, 모뎀은 기본이고 집안에서 모든 바깥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학생들에게는 친절한 선생님 노릇까지 해줄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제는 멀티 미디어라는 개념으로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케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와 기초물성 기술개발 시급

오늘날 이렇게 한국의 멀티 미디어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발달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업은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느니 혹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면서 단기간의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느니 여러가지로 비판의 소리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야도 현재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만큼 대단한 것은 없다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신문지상에서 심심찮게 보도되는 세계 최초의 고성능의 칩을 개발했다거나 또는 최근 현대전자가 13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대우,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이 다각도로 해외투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 봄으로써 미래를 주도하게 될 이 분야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 차원에서의 현명한 판단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부차원에서도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같은 기초적인 문제에서 부터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와 혁신적인 진흥시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기술구조가 이중적이라는 약점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즉 제조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설계와 기초 물성 기술은 부끄러울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일에 반도체 장비의 80%, 원부자재의 50%를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비의 12%를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10여년의 일천한 역사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사실은 아마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산업에서처럼선진국에 종속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술개발 투자에 힘써야

먼저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기업들의 정확한 상황 인식력이 밑받침되어야 하겠다.

최근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와 같은 신흥 기술국들 사이의 경쟁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상황에서 전개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두번째로 이러한 기술력의 확보 방안으로써 인재 양성과 같은 기본적인 과제들과 아울러 해외 직접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대전자가 건설하게 될 미국 공장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우선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이미 개발된 연구성과를 쉽게 도입하여 우리 것에 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불력화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직접투자 및 생산은 갖가지 무역 장벽을 피해 그 지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 갈 수 있고 현지 고용창출 등을 통해 현지인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잇점도 있으며 또한 국내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다각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 봄으로써 미래를 주도하게될 이 분야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 차원에서의 현명한 판단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부차원에서도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같은 기초적인 문제에서 부터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와 혁신적인 진흥시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